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Sports Stadiums

저자 (Authors)	김두희 Kim, Du-hee
출처 (Source)	스포츠과학논문집 24 , 2012.12, 1-16(16 pages) Journal of Sport Science 24 , 2012.12, 1-16(16 pages)
발행처 (Publisher)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INHA University Sports Science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07806
APA Style	김두희 (2012).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연구. 스포츠과학논문집, 24, 1-16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1/08 16:2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연구

김 두 휘*(강릉원주대학교)

국 문 초 록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두 번의 고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계스포츠의 꽃인 올림픽이 유치되었다. 이에 유치에 따라 대회운영에 필요한 다수의 대규모 경기장이 신규로 건립 될 예정으로 해당 지자체의 경제파급효과와 고용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장 건립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및 사후 운영에 따른 위험 부담이 동시에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장 시설 역시 단순한 경제효과 수치가 아닌 비용 대비 편익을 철저히 재분석하여 강원도 재정에 장기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사후 시설운영에 따른 순기능 및 역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올림픽 이후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성화 방안 및 관리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의 연구결과, 상암월드컵 경기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월드컵 경기장이 지속되는 운영적자로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계 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해서 1) 타 지역 경기장 시설의 활용검토 2)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가이드 라인의 사전 수립 3) 원활한 사후 시설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올림픽을 마친 후 원활한 사후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마케팅 및 운영을 위임하고 이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경기장 시설뿐 만 아니라 대규모로 건립되는 숙박시설의 사후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숙박시설의 활용도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국제규모의 지속적 유치를 통해 경기장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역시 제고 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활용방안

* wkdh2000@yahoo.co.kr

I. 서론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흡했던 동계스포츠의 활성화와 대중적인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문화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IT선진국으로서 최고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올림픽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로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의 선진화 된 프로그램의 동계스포츠 문화를 선보일 수 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이미지 제고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스포츠 한국의 위상을 더 한층 높인 계기가 된 것과 같은 큰 발전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은 국제 스포츠 대회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의미 뿐 만 아니라, 개최지인 강원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임이 틀림이 없다.

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의 건립은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개최지역의 추가적인 브랜드 이미지의 향상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경기장 시설의 사후 운영을 통해 고용 및 소비를 창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현재까지 대형스포츠이벤트의 종료 이후 사후 시설 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 되어 있다. 특히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대규모의 축구경기장을 건립하고 활용하였으나 대회가 종료 후 발생한 경기장 사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경제적으로는 적자운영과 적정한 활용을 하지 못해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빙상 경기장 시설이 대부분 국제 규격에 미달하고 규격자체가 올림픽경기장의 규격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경기장의 건립은 불가피하다. 또한 막상 올림픽에서 요구한 경기장을 건립한다고 해도 큰 국제경기대회가 아니고서는 운영·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경기장은 규격에 맞춰 건립되어야 만 하고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강원도민들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타 지역보다 미약한 발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평창올림픽의 개최는 다소 경제적인 부흥의 희망이다. 이에 강원도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모든 부분을 전부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의 주요 지자체는 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스포츠 이벤트는 정부의 재정지원 뿐 아니라 개최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인천시의 사례와 같이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부정적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예로써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는 아시안 게임의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고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전액 인천시 예산으로 주경기장 건설 신축을 추진해왔다.¹⁾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이 악화되자 2011년 주경기장을 짓기로 했던 포

1) 당초 정부는 기존 문학월드컵경기장을 증축 내지 개보수 해 활용하라는 입장을 제시함.

스코 건설이 경기장 건설을 포기함으로써 주경기장 신축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의 시설물 확충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약 1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들을 포함한 지방채, 공사채 발행 잔액은 9조 3655억원에 달하는 등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2007년 동계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이후 강원도가 세 번째 도전을 선언하자 도내 39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가 유치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초 90%를 상회하던 압도적 올림픽 유치 찬성 여론은 59.9%까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역시 설상 경기장과 빙상 경기장을 신축해야 하며 이 가운데 강릉에서 준비되는 빙상경기장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남), 아이스하키(여), 컬링, 스피드스케이팅 등 5개 시설)의 신규 건설대상은 피겨/쇼트트랙 과 남녀 아이스하키경기장 등 3개 시설로, 경기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약 102,348 백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통한 지역개발의 효과와 같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강원도의 재정수준을 감안할 때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익기반의 확대와 재정안정을 동시에 감안한 시설의 도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 경기장 운영을 통해 강원도 지역 스포츠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과 공간으

로 제공되는 방안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입법 발의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이 2011년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준비,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운영 및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그리고 다양한 세계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동계올림픽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강원도 지역이 일회성 국제행사가 아닌 강원도 지역의 발전의 계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및 운영수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 및 사후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계획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스페셜 올림픽, 2015년 전국체전에 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이 건립되는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올림픽 이후 경기장 시설의 활용의 극대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사후 효율적 운영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개최지 체육시설 현황 및 경기장 건립계획을 조사하였으며 IOC가 요구하는 경기장의 규모 및 제반요건들을 조사 연구하였고,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유일하게 혹자 운영되고 있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의 활용을 세밀히 조사하여 2018년 평창올림픽이후의 지자체가 안게 될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고 기 개최된 동계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운영 사례분석 및 국내 경기장의 사후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성화 방안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결과

1.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성화의 필요성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의 주요 지자체는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해 온 평창 동계올림픽은 경기장, 교통망 및 숙박시설 투자 등 약 21조원의 직접 경제파급 효과가 추정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뿐 아니라 개최도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개최는 시설건설에 투자 되는 막대한 예산부담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역시 설상경기장과 빙상경기장을 신축해야 하며 이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서 준비되는 빙상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천억원 (102,348 백만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림픽 이후 경기장 운영을 통한 수익기반의 확대 와 재정안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설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립 계획

1) 개최지 체육시설 현황

2018년 동계올림픽은 대회 개최에 필요한 13개 경기장 중 7개의 경기장이 조성이 완료 되었으며 6개의 경기장을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클러스터 별 개최 장소는 <표 1>과 같다.

표 1. 동계올림픽 개최장소

구 분	용 도
알펜시아 클러스터	올림픽 개회식 및 폐회식 알파인, 스키점프, 크로스 컨트리: 설상종목올림픽 스타디움 기능: 경기장과 선수촌, IOC본부
코스타 크러너	빙상경기장: 스피드, 쇼트트랙, 피겨 선수촌 및 미디어촌
2개의 독립경기장	알파인스키(중봉) 프리스타일 및 스노우보드(보광 휘닉스)

빙상경기의 경우 경기종목이 늘어나면서 스피드스케이팅(1), 피겨스케이팅/쇼트트랙(1), 하키(2), 컬링 등 총5개의 경기장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빙상경기장이 건립되는 강릉시의 경우 강릉실내체육관(1,000석), 종합실내체육관 (지상 3,000석, 지하 500석), 주문진체육관(1,200석), 황영조 기념체육관(1,300석)등 4개의 실내체육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빙상 경기를 위한 국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모두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 2.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확보 현황

구 분	기 확보
설상경기장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 알파인 (대회전, 회전) : 용평(4) 프리스타일 : 보광휘닉스파크 스노보드 : 보광 휘닉스파크
빙상경기장	컬링 (강릉실내빙상장)

2) 경기장 건립비용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IOC의 기준에 적합한 동계올림픽 시설의 확보가 필요한데 시설확보를 위한 총건설비는 약 5,40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비(30%):지방비(70%)의 비율로 투입예정이다 그 외에도 선수촌 및 숙박시설을 조성하는데 약 1조 9723억원이 그리고 경기장 연결도로 등에 약 38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설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SU(국제빙상연맹)에서 동계올림픽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관람석 요건을 10,000석에서 12,000석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 3>에서와 같이 추정되고 있다.

표 3. 빙상경기종목 및 IOC 경기장 기준

종목명	IOC 기준	예상비용
스피드 스케이팅	트랙 400 m 6,000 석	1,417 억원
피겨 스케이팅	링크 61×30 m 링크 2면	966 억원
쇼트 트랙	12,000 석	
	42.07×4.27 m	
컬링	4면 3,500 석	50 억원

출처 : 강원도청,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현황 (2008)

따라서 동계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의 경우 기존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경기장과 관련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지자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의 빙상경기가 이루어질 강릉은 빙상과 일반 실내체육경기가 가능한 피겨/

쇼트트랙 경기장이 건립될 예정으로 강릉에서 준비되는 빙상경기장의 총 사업비는 <표 4>에서와 같다.

표 4. 빙상 경기장 건립 총 사업비

항목	내용
공사비	89,400 백만원
보상비	4,335 백만원
설계비	4,390 백만원
감리비	3,938 백만원
시설부대비	285 백만원
총 사업비	102,348 백만원

출처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

당초 원안이었던 109,000 m^2 에서 78,596 m^2 으로 보상 부지면적이 줄었지만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보상비가 약 43억 증가하였으며, IOC의 요구에 의한 관람석의 증가 등으로 공사비 역시 총액기준 약 1백억 이상 증가하였다.

3. 사례분석

1) 해외사례 : 기 개최 올림픽

2010 밴쿠버 올림픽의 경우 빙상종목은 총 28개 종목이 5개의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경기장 중 기존시설을 활용한 것은 3개였으며 2개의 경기장이 신설되었다.

컬링경기장 (Vancouver Olympic Center) 은 5,600명 수용 가능한 역대 올림픽 중 최대 규모 (10,033 m^2) 였으며, 아이스하키는 19,300명 수용이 가능한 Canada Hockey Place와 6,800명 수용 가능

한 UBC Thunderbird Arena 에서 이루어졌다. UBC Thunderbird Arena는 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캠퍼스 내에 위치한 경기장으로 경기 후에는 다목적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피겨스케이팅 및 쇼트트랙(Pacific Coliseum) 경기장은 17,500명 관객석을 확보하였으며 경기 후에는 스포츠, 전시,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6 토리노 올림픽의 경우에도 총 28개 빙상 종목이 5개의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경기장 중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1), 컬링 경기장은 기존시설을 활용하였으며 스피드스케이팅 및 아이스하키(2) 2개의 경기장이 신설되었다.

컬링경기장 (Pinerolo Palaghiaccio)은 마을 동쪽에 위치한 경기장은 수영장, 체육관, 육상 트랙 그리고 축구장을 갖춘 종합 경기장으로 약 3,0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2,000개의 좌석을 갖추었다.

아이스하키(Torino Esposizioni) 경기장은 5,400명을 수용 가능한 규모로 원래 무역 박람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던 건물을 개조하여 대회기간 동안 활용하고 경기 후에는 다시 본래의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였다.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신설된 12,500명 수용 규모의 아이스하키 (Palasport Olimpico) 경기장은 올림픽 이후 경기장, 공연장 등 다목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스피드스케이팅(Oval Lingotto) 경기장은 8,250명 규모로 경기장은 휴게실, 경기 구역, 그리고 기술 영역으로 구성되어 개최되는 행사에 따라 쉽게 구역이 나뉘거나 다른 형태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경기개최 이후에는

빙상경기장 및 전시장으로 활용되었다.

2) 국내 사례: 상암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대회는 단일 종목 경기대회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올림픽과 비교될 만큼 규모가 큰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다.

월드컵 대회는 올림픽 대회와 비교하여 행사일정이 단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FIFA에서는 대회진행을 위한 시설 기준으로 경기장은 8개~12개, 그리고 경기장 수용인원은 조예선, 16강 및 8강전은 4만석 이상, 그리고 준결승, 결승전은 6만석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최도시 분산으로 개최국가의 지역경제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장 운영활성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대회 진행을 위해 신축한 경기장은 <표 5> 에서와 같다.

표 5. 2002 월드컵 경기장 신축 현황

지역	총 사업비(억원)	수용규모
서울	2,000	63,500
부산	1,670	65,202
대구	2,134	70,140
인천	1,003	51,000
광주	1,206	42,100
대전	9,35	43,000
울산	1,101	42,593
수원	1,224	43,000
전주	1,017	41,620
서귀포	892	41,650
합계	13,182	503,805

출처 :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 관리단 (2002)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경우에는 경기장 실외는 스포츠 종합 시설 단지로 그리고 경기장 실내의 활용은 백화점식 상가 및 대형할인매장 소극장, 전시실 및 컨벤션으로 각각 기획을 하였다.

경기장 내 다양한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그리고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운영면에서 흑자운영을 지향하였지만 초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운영 수지 역시 타 월드컵 구장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적자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상위 성적에 따른 시너지와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 그리고 강변북로 확장(8→10차선, 2000년), 올림픽대로 확장(6→8차선, 2000), 및 지하철 6호선 건설 등 인프라의 확충에 따른 복합 효과로 인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전국의 10개의 경기장중 유일하게 매년 100억원의 흑자를 내는 유일한 경기장이 되었다.

3) 국내 사례: 기타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건설경비의 대부분을 지출하게 됨에 따라 초기부터 지자체의 재정상태의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특히 민간자본 투자유인성의 불확실성 및 소비자 유인 효과가 불투명한 것이 약점으로 분석되었다.

경기장 시설에 대한 사업관리 운영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에서 2001년 문을 연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은 첫해부터 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후 2006년 2.5억, 2007년 3억, 2008년 1.95억등 적자를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시설이 노후화에 따라 유지 보수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외에 국내에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 후 경기장 운영이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준 사례는 대구 월드컵 경기장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국내에서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 후 경기장 운영이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준 사례는 대구 월드컵 경기장을 들 수 있다.

대구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연면적 42,827평 좌석수 70149석으로 2,925억원 투입 비용 중 50%를 국고 보조금에서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조달하여 건립하였으나 경기장 건립 당시 프로구단이 존재하지 않아 향후의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다양한 활용도를 위한 사전설계가 미흡하여 스포츠외 대형 이벤트의 유치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유치한 인천시는 아시안 게임의 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고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전액 인천시 예산으로 주경기장 건설 신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천시의 재정이 악화되자 2011년 주경기장을 건설하기로 했던 포스코 건설이 경기장 건설을 포기함으로써 주경기장 신축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의 시설물 확충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약 1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1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들을 포함한 지방채, 공사채 발행 잔액은 9조 3655억원에 달하는 등 아시안 게임 개최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이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부산의 경우 2002 아시안게임을 치른 후 시설유지에만 매년 수십억을 쏟아 붓고 있게 되자 아시안 게임을 위해 신규로 건립한 사이클 경기장에 194억원을 다시 투자해서 경륜장을 도입

하였다. 하지만 개장 당해에만 66억, 2004년 140억, 2005년 115억, 2006년 약 60억 원등 경기장 전 환공사비를 포함해 약 600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였다.

4. 평창 동계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성화

1)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소유권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소유권은 강원도와 강릉시 그리고 민간 사업자인 보광휘닉스파크와 용평리조트로 <표 6>과 같다.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 코스타 클러스터는 기존 강릉 실내 빙상장을 컬링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스하키 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팅 및 피

겨스케이팅 및 쇼트랙 경기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2)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발전계획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시설의 기능과 관광휴양 연구 주거 산업기능을 갖춘 동계 스포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위한 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림픽 특구의 지정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시시설과 연계된 산업유치를 통한 자급 자족형 복합 기능화
- ② 관광 문화 기능 및 도시기능 간 연계를 통한 정주 기반의 구축
- ③ 경기관련 지원시설 및 도로, 철도 등의 사회 기반시설의 구축 및 산업 R&D, 교육, 유통 이벤

표 6.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소유권

경기장	신설여부	종목명	소유권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기존	바이애슬론 (10세부종목)	강원도
알펜시아 노르딕센터	기존	크로스컨트리 (12세부종목) 노르딕 복합 (3세부종목)	강원도
알펜시아 스키점프장	기존	스키점프 (3세부종목) 노르딕복합 (3세부종목)	강원도
용평 알파인 경기장	기존	알파인 테크니컬 (4세부종목)	용평리조트
보광 프리스타일 경기장	기존	프리스타일 (6세부종목)	보광휘닉스파크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기존	스노보드 (6세부종목)	보광휘닉스파크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신설	루지 (3세부종목) 봅슬레이 (3세부종목) 스켈레톤 (2세부종목)	강원도
중봉 알파인 경기장	신설	알파인 스피드 (6세부종목)	강원도
강릉실내 빙상장	기존	컬링 (2세부종목)	강원도
유니온 하키센터	신설	아이스하키 I (3세부종목)	강원도
영동대학 체육관	신설	아이스하키 II (3세부종목)	강원도
사이언스 오발	신설	스피드스케이팅 (12세부종목)	강원도
경포 아이스홀	신설	피겨스케이팅 (4세부종목) 쇼트랙 (8세부종목)	강원도

출처 :동계 올림픽 사후 활용방안 전문가 포럼 (2011)

트 관광 등의 스포츠 산업 기능 강화

3) 동계 올림픽 시설의 사후 관리방향

한국개발연구원을 포함 국내 연구기관들은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부가가치까지 포함해 최대 22조원의 경제파급효과와 22 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올림픽 유치에 따른 지자체의 긍정적 효과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지원 및 교통, 통신 등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경기부양 및 그 외에 스포츠발전 관광객 유치 및 개최도시의 브랜드 이

미지 제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강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이미 1990년대 후반 공공이 재정을 부담하는 경기장 건설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왔으며 올림픽 유치에 따른 개최 비용이 10조 원에 달하였던 그리스 아테네는 35개 경기장과 72개 훈련장 유지에 연간 1천2백억 원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의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제효과에 대한 허구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부분 부정적 결론을 제시하



그림 1. 강원 종합 발전 계획 (2011)

출처 :동계 올림픽 사후 활용방안 전문가 포럼 (2011)

고 있다(Siegfried & Zimbalist, 2006).

국내에서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예산이 동계올림픽등 국제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입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 경제효과 수치가 아닌 비용(cost) 대비 편익(benefit) 분석을 철저하여 검토하여 비록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더라도 지자체에 미치는 장기적 손익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올림픽 스포츠 산업 클러스터 및 올림픽 특구를 조성하는 종합발전 계획을 구상단계에서부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회 개최 이후 파급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사후관리 전략 및 사후 시설활용에 관한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㉔ 타 지역 경기장 시설 활용 검토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예산이 동계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타 올림픽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6년 개최된 토리노 동계 올림픽의 경우 세부 경기 진행을 위한 개최지역의 수는 8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개최지는 주 개최지로부터 약 79km에서 194km로 분포되었으며,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의 경우에도 10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2018 동계 올림픽이 치루어지는 경기장의 임대 및 분양을 통한 사후 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강원도 도내의 시설 뿐 만 아니라 타 지역 특히 수도권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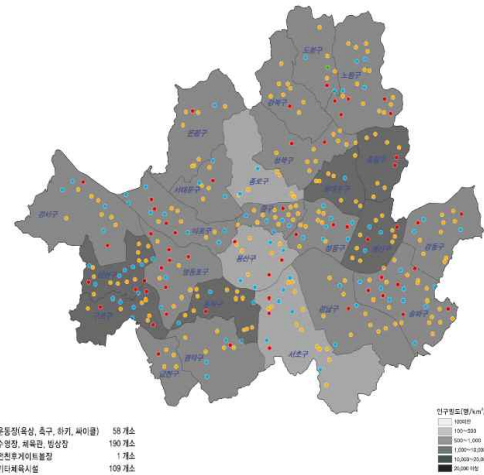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지역 체육시설 분포도

출처 : 문화관광체육부 (2011)

표 7. 전국 아이스링크 현황

지 역	내 용
서울 (17)	목동아이스링크 외 16개
경기 (6)	고양아이스링크 외 6개
강원 (2)	강릉실내빙상장 외 1개
충청 (1)	청주아이스링크
전라 (3)	전주실내빙상경기장 외 2개

출처 : 대한빙상경기연맹(2009)

강원도는 강릉 실내 빙상장은 컬링 경기장으로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 컬링을 제외한 아이스하키 및 스피드 스케이팅 / 피겨 스케이팅 경기장은 신설할 예정으로 이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기존 경기장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건립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지역의 경기장 역시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IOC의 기준에는 모두 미달하여 동계 올림픽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경기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고 기존 경기장을 증축 및 보완하거나 새로운 경기장을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후자운영 사례와 같이 수도권 주변의 인구밀도가 강원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코스타 클러스터에 신설 예정인 일부 빙상 경기장의 사후 운영타당성과 함께 접근성 및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 배후에 경기장 신설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비교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동계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가이드안 수립
개최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경기장 및 지원시설의 사후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앞 절에서 언급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사례와 같이 상업시설 및 대형 문화공연이 가능한 수익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복합적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구조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사후 시설의 다용도 활용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사전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원활한 사후 시설 운영을 위한 검토 사항
현재 후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예를 통해 사후 시설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 및 운영단계의 위험 관리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법적 제도적 사항 : 계약기간 및 경쟁 입찰

장기계약은 유치 및 시설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 조건이나 당시 잡종재산에 속하는 경기장 시설은 대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규제가 되고 있었다. 특히 할인점, 복합영상관과 같이 초기의 시설투자비, 상권의 성숙에 따른 미래수익의 안정적인 확보 등의 이유로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은 임차 출점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우에도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우량시설의 경우 테넌트 유치를 위해 장기계약을 감안하여 이를 사전에 유치 할 필요가 있다.

표 8. 운영관련 법적 문제점 : 계약기간

근 거 법	법 규 내 용
• 지방재정법 시행령 77조	• 월드컵 경기장의 수익시설은 법규상의 재산의 종류에서 잡종재산에 속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90조	• 잡종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을 5년으로 설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

다음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다. 경쟁 입찰에 의한 선정방식은 오히려 경쟁력 및 집객력이 약한 업체가 선정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식당, 푸드 코트와 같은 테넌트의 경우 음식 맛이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익계약 형태로 업체선정 방식이 전환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집객력이 약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 선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반테넌트의 임대료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설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시설의 경우 입찰 참가요건을 강화하여 경쟁력·집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일반시설의 경우도 입찰요건에 상세 브랜드까지 명시하여 테넌트 간 전체적 품질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9. 운영관련 법적 문제점 : 경쟁입찰

근거법	법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잡종재산의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

② 상업시설 운영 위험관리

올림픽 사후 지자체가 시설을 직영하게 될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테넌트 장악력 저하될 뿐만 아니라 테넌트와 유기적 관계가 미약하며, 광고 홍보 등 마케팅 능력 및 상업시설의 영업상 위험에 대처능력이 민간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자체차원에서 사후 활용을 위한 경기장 및 지원시설의 운영안 및 운영사업자를 사전에 공모하여 이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사후 활용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운영상의 위험관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마케팅 분야의 외부 전문가 영입
- 일부시설 및 기능의 위탁운영
- 경기장 시설관리 주체와 테넌트의 협의기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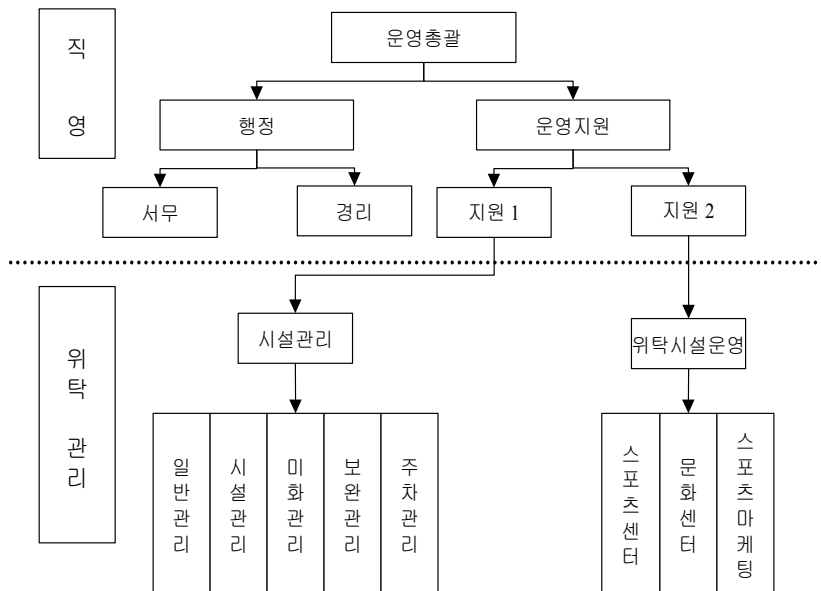


그림 3. 운영조직 예

<그림 3>에서와 같이 일부시설 및 기능의 위탁 운영을 통해 경기장 운영사와 테넌트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운영협의회에서 대고객 서비스 개선, 판촉 및 광고활동 기획 협의, 시설 운영 관리 및 기타 운영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시설의 MD 기획·관리, 계약관리, 광고·홍보 및 시설운영 위탁 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그림 3>의 「지원 2」 기구에 외부 전문가를 개발과정에서 부터 영입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는 202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국제기구 행사를 도내에 개최함으로써 경기장 시설의 국제회의 활용을 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운영적 위험을 감안하여 경기장 활용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숙박시설 사후 활용방안

평창올림픽 숙박시설 규모는 숙박시설이 16,300실, 선수촌 3,200실, 미디어촌 10,500실 등 총 30,000실로 투자비는 총 시설 투자비의 약 16.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계올림픽 유치에 위해 강원도가 1조 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 부은 알펜시아리조트는 분양을 저조로 알펜시아의 채무는 총 9천921억원으로 하루 이자가 1억1천100만 원에 달하며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서울올림픽과 같이 대회 이후 일반에게 분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향후 활용방안에 특히 사전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서해안 관광벨트의 개발로 강원도내 리조트 분양율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여 강릉 코스타라 선수촌을 지역에 입지하는 산업체 직원들의

주거용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입주기업을 확정 유치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국제규모의 행사의 지속적 유치

강원도는 202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국제기구 행사를 도내에 개최함으로써 경기장 시설의 국제회의 활용을 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운영 위험을 감안하여 경기장 활용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 행사뿐만 아니라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국제 동계스포츠의 지속적 유치를 위한 사전 마케팅 또한 필요하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 월드컵 경기장 및 해외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2018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란 대회자체의 무리 없는 준비, 원활한 대회의 진행, 대회에서의 우수한 성과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된 시설의 활용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제적 수익의 창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막대한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될 동계 올림픽 시설의 효과정인 사후활용 방안 모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계 올림픽 시설의 사

후 관리방향 제시하기 위해 국내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사후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순기능 및 역기능을 분석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한 만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경기 종료 후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적의 사후 활용이 가능한 경기장을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시설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올림픽 시설이 사후 지역사회의 발전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강원도의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향후 시행령의 제정 단계에서 경기장 활용에 따른 법적 제도적 이슈사항을 고려하여 경기 종료 후 시설 운영 시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의 사후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고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대경(2002). 월드컵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 **지방행정** 51, 62-67.
- 김호민(2002).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사후 활용성 제고 방안. **체육과학학회지**, 11(2), 35-44.
- 강원도(2000). 2010 동계올림픽 유치계획.
- 김정환, 정진화(1995).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 개최가 자치단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안동대학교 논문집**, 17(1), 81-92.
- 류종현(201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정과 향후 과제. 강원발전연구원, 117.
- 박진경(2001). 2010 동계올림픽 시설건설의 기본 방향 및 사후 활용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 14(1), 55-74.
- 양방철(1998).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환경월드컵을 위한 정책 방향.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오상덕(2001). 2010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 전략. **한국체육과학학회지**, 40(4), 527-536.
- 유의동(2011). 평창동계올림픽 빙상종목 시설 사후활용 전략. 강원발전연구원.
- 이용철(2001).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13, 227-244.
- 최진우(1998). 경기장 사후활용성 제고방안.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 시설부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정희준(2008). 스포츠 메가이벤트와 경제효과: 그 진실과 허구의 재구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1), 229-251.
- Coates, D., & Humphries, B.(2003). *Professional sports facilities, franchises and urban economic development*.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working paper, 03-103.
- Coyle, W.(2002). *Interview: Manager, events unit, sheffield city council at events unit*. Sheffield, Sheffield City Council, 12 noon, 19 July.
- Crompton, J.(1995). Economic impact analysis of sports facilities and events: eleven sources of misapplicat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9, 14-35.

- Crompton, J.(2001). Public subsidies to professional team sport facilities in the USA. In Gratton, C. and Henry, I. (eds), *Sport in the city: The role of sport in economic and social regeneration*. London, Routledge, Chapter 2.
- HKSDb.(2002). *Economic impact of sport: Report to Hong Kong Sport Development Board*. August 2002. Produced by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Ltd (BERL), Wellington, New Zealand.
- Masterman, G.(2009). *Strategic sports event management* (2nd). Butterworth-Heinemann Publishing.
-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VIII Olympic Winter Games(1998). The VIII Olympic Winter Games Official Report II: Sixteen Days of Glory.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VIII Olympic Winter Games.

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Sports Stadiums

Kim, Du-hee(Kangwoon Wonju University)

According to holding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 large number of Sports Stadiums are scheduled to be built into Kangwon-Do Area. In fact, the constructions of the large stadiums are expected to provide effects to economy of Kangwon-do and local employment. But at the same time, the construction of stadiums and post-operation of Olympic Sports Facilities will remain as challenges for the Local Government due to the financial burden of risk, In the case of the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s Games, sports facilities should be introduced to minimize the local government's Long-term financial burden after Olympic Games. To emphasize the need of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Winter Olympic Sports Stadiums after the Winter Olympics,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practices of large-scale domestic world-cup sports facilities. and as a result, it is analyzed that most of domestic World Cup stadiums are in deficits and the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 except Sangam World Cup Stadium. In order to make effective post utilization of 2018 Winter Olympic facilities, this study preceded as followings : 1) Considering take advantage of the stadium facilities which located in outside the Kangwon region 2) Preliminary Establishment of the plan for the post-utilization guidelines of Winter Olympic Facilities. 3) Review details for the effective post-operation of winter olympic facilitie. it is analyzed that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post-operation of facilities are managed by the private delegate with expertise in marketing and operation is desirable. In addition, to the post-activation of large scale accommodation favilities as well as sports facilities, it is analyzed that various review are required in advance for the post-utilization as well as considering the plan for increasing the utilization of the winter olypic sports facilities by holding the large scale international events continuously,

Key words : Winter Olympic Sports Stadium, Post-Operation of Olympic Sports Facilities